

제24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지난 11월 21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등 관계인사와 유공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에너지절약형 공정개발과 자발적 에너지협약(VA) 참여 등을 통해 연간 500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이룬 (주)코오롱 조정호 대표가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40명이 각종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동우공영(주) 김영남 대표 등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 120명이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동탑산업훈장은 사업장 설계시부터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 원사업계 최초로 ISO 9002 및 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원가절감의 노력으로 에너지비용 2백억원을 절감한 도레이새한(주) 김진년 상무가 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업계 최초로 공정폐열을 전량 회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완전연소 시스템적용과 공정개선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삼성비피화학(주) 박세훈 상무가, 석탑산업훈장은 유리제조 중 가장 에너지소비가 많은 용해

공정의 개선을 통해 최고수준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에 앞장선 (주)두산 군포공장 권덕기 상무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남해화학(주), 쌍용자동차(주) 평택공장, 대림요업(주), (주)에네스산전 등 40명이 각종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우공영(주), (주)창덕이앤씨, 동진엔지니어링 등의 에너지관계자 120명도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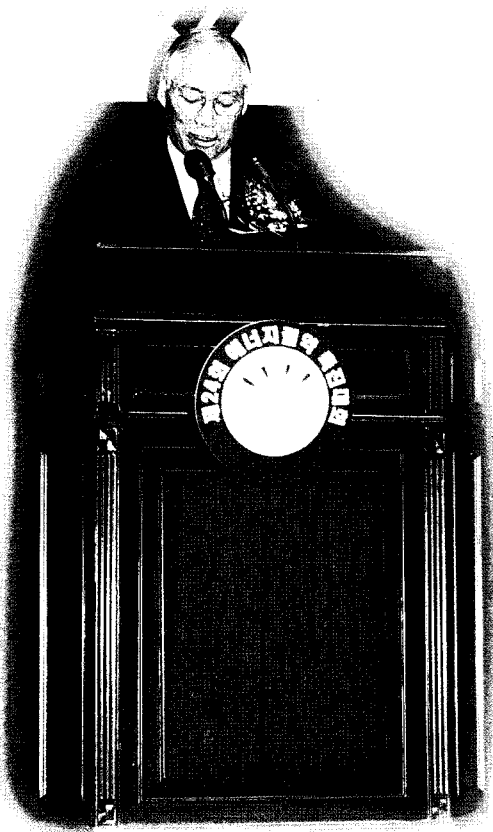
대통령표창 단체상에는 한화석유화학 울산공장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수상했다. 한화는 1999년 12월 울산공장 1사업장, 2000년 2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한화그룹내 에너지 절감 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및 ESCO 사업을 적극 활용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백3억원의 시설자금을 추천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정보교류사업(ES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에너지 절감 기업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등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사업에 참여해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절감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및 절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에너지 사용 및 절감 실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Master-3) 현장 분임조 단위까지 원가절감 계획 및 실적을 전산관리함으로써 정보 공유와 데이터 분석, 부서간 우수사례 공유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날 (주)코오롱의 조정호 대표는 기업부문 대표로, 올해 에너지절약 체험수기 현상공모 최우수상 수상자인 차보영 주부는 가정부문 대표로 각각 에너지 절약 사례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2002 학생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웅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이리 영등초등학교 4학년 이효정양의 웅변과 합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주 주성중학교 합창단의 합창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다.

김석수 총리는 치사를 통해 “전체 수입액 중 에너지 수입이 24%나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근 불안한 증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등락과 지난 10월 교토의정서의 국회 비준 통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세계기후변화협약은 전국민의 에너지절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설투자 재원, 금리, 세제 및 기술지원 등 에너지절약 지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소비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천을 유도하며 에너지 절약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975년 처음 열린 이래 매년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에 개최되고 있다. e



김석수 총리는 치사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시설투자 재원, 금리, 세제 및 기술지원 등 에너지절약 지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400여명이 참석해 있다



이날 주요 수상자들에게 김석수 국무총리가 시상하고 있다.